

名字說의 시기별 양상에 대한 고찰

김성균*

국문초록

명자설은 개인의 이름이나 자에 쓰인 글자의 의미를 해설하는 글로, 사람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 고대 전통에서 연원하여 송대에 본격적으로 출현하였다. 한국 한문학에서의 명자설은 송의 영향을 받아 고려 후기에 등장하였고, 이후 조선의 전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술되었다.

본고에서는 한국 명자설의 주요 작품을 시기별로 분류·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한 시기의 작품군이 다른 시기의 것과 구분되는 특징을 도출하여 비교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정 시기의 작품을 주제로 한 각종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이를 종합하고, 명자설의 저자인 인물들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사항들을 명자설 주제에 맞게 인용함으로써 시기별 명자설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한국 한문학의 명자설 작품을 크게 세 시기로 분류하고, 시기별 작품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선 사대부 사회에 『가례』가 도입되고 보급되는 추세에 동반하여 명자설 작품의 새로운 유형이 출현한 점과, 조선 말기의 시대 상황에 기인하여 명자설 작품이 대규모로 발생한 점 등을 파악하였다.

* 고려대학교 고전번역협동과정 박사수료(한문고전번역 전공)

주제어: 명자설(名字說), 자설(字說), 자사(字辭), 관례(冠禮), 『주자가례(朱子家禮)』

1. 머리말

名字說은 개인의 이름이나 자를 제재로 하여 그 의미를 해설하는 내용을 담은 글이다. 명자설 작품은 주로 冠禮 의식의 한 절차인 字冠者禮를 포함한, 작자가 상대의 名字를 지어 주는 命名 행위를 계기로 하여 지어 졌다. 작품의 형식으로는 명자에 사용한 글자를 택한 이유와 그 글자의 의미·관련된 전고 등을 기술하고, 이를 통하여 글자를 받는 사람에게 설의 작자가 주는 당부와 격려의 말을 덧붙이는 구성이 일반적이다. 그 외에도 설의 작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명자를 바꾸면서 짓는 改名·改字를 계기로 하는 글과, 작자가 상대의 명자를 직접 지어 주지는 않았으나 역시 명자의 의미를 설명한 글도 명자설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더 나아가 사람의 號와 건물의 堂號, 그리고 地名·物名 등의 각종 호칭을 제재로 하는 소수의 작품까지 넓은 의미의 명자설에 포함시키는 의견도 있다.¹⁾

명자설은 중국 宋代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송대의 사대부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가의 전통에 기반한 도덕과 의례를 보급하는 데에 힘썼고, 그 흐름 속에서 기존에 잊힌 예법이었던 관례가 다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례를 치르며 자를 지어 줄 때나 개명·개자를 할 때에 그 경위와 의미를 설명하는 글을 지어 남기는 관습이 자리 잡았다.²⁾

한국 한문학의 명자설은 고려 후기 林椿·李奎報의 작품에서 처음으로

-
- 1) 양현승, 「韓國 '說' 文學 研究 : '寓言的 說'의 敘事性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71쪽.
 2) 張海鷗, 「宋代의 名字說與名字文化」, 『中山大學學報』 5, 2013, 18쪽; 이주해, 「명자설(名字說)과 아버지의 글쓰기- 송대(宋代)를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44, 2018, 230-232쪽.

나타나고, 그 이후 조선의 전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본고는 이 점에 관하여, 한국의 역대 명자설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기별로 구분되는 특징을 포착하고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명자설과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첫째로, 名·字·號 등을 대상으로 하여 명명의 방식과 실제 사례를 검토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명자설을 언급한 연구가 있다.³⁾ 이 연구들에서는 자와 호의 의미와 성격, 전통적 작명과 현대적 작명의 양상 등을 서술하고 명자설 작품을 예시로 들어 소개하였다. 둘째로, 說 문학을 주제로 한 연구 안에서 명자설을 거론한 사례가 있다.⁴⁾ 이 연구들에서는 說 문체의 대분류에 포함되는 다양한 작품들을 특징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명자설을 그 중의 하나로 포함하였다. 셋째로, 특정 인물 또는 특정 시기의 명자설 작품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⁵⁾ 이 연구들에서는 주로 한 인물이나 한 시기의 작품군에 적용되는 특징점을 도출하였다. 넷째로, 명자설을 현대의 인성 교육·한문과 전통문화 교육에 활용하는 시도로 이루어진 연구가 있다.⁶⁾ 이 연구들에서는 현대의 교육 목적에 적합한 명자설을 검토하고 선별하여 교육의 내용에 따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명자설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선행 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
- 3) 신용호·강현규, 『先賢들의 字와 號』, 서울 : 전통문화연구회, 1997; 신용호, 「先賢들의 名·字·號 연구」, 『漢文學과 漢文教育』 下, 서울 : 보고사, 2004, 185-271쪽; 이복규, 『한국의 이름 이야기』, 서울 :學古房, 2012; 신용호 『명설과 자설』, 서울 : 전통문화연구회, 2014; 심경호, 「이름과 호의 한자문화」, 『어문연구』 46.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8.
- 4) 양현승(2001); 김정아, 「『說』의 서술방식과 문학성 연구 - 『東文選』을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유이경, 『조선 중기 說 장르 전개의 문화 사회학적 연구』, 서울 : 파랑새미디어, 2019.
- 5) 유이경, 「牧隱 李穡의 名字說에 나타난 思想」, 『연구논총』 33, 1997; 이은영, 「祝辭와 字說을 통해 본 冠禮: 17세기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학』 29.2, 2006; 이주해(2018); 권진옥, 「명자설(名字說)의 문학성 재고(再考)」, 『동양고전연구』 75, 2019; 유영봉, 「『儒學 種子』 保全을 위한 松沙 奇宇萬의 문학적 활용 - 字辭와 墓碣銘을 중심으로 -」, 『漢文學報』 43, 2020; 권익기, 「『東文選(東文選)』의 인명설(人名說) 고찰 - 이름과 이름짓기를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78, 2021.
- 6) 송미화, 「관례(冠禮)의 전통과 인성교육적 함의」, 『대동철학』 89, 대동철학회, 2019; 도승구, 「『名字說』의 특성과 교육적 활용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하여, 중국과 한국 문학사에서의 명자설의 연원을 검토한 뒤에, 고려 중기에 발생하여 이후 조선 말기까지 저작된 한국 명자설의 면모를 조망하며 시기별 작품의 대표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명자설의 연원

2.1. 중국 문학사

중국 역대의 문학 이론서 중에서 명자설을 독자적인 문체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수록한 대표적인 책은 明代 중기의 학자 徐師曾(1517-1580)이 저술한 『文體明辨』이다.⁷⁾ 『문체명변』 권52 「字說」 조에서는 『儀禮』 「土冠禮」에 기록된 고대의 冠禮 절차에서 사용한 운문체의 字辭를 명자설의 연원으로 제시하고, 자를 지어 주며 훈계하는 고대 자사의 의의를 계승하여 후세에 지어진 운문체와 산문체의 문장들을 명자설로 분류하였다. 「자설」 조에 명자설의 일종으로 수록된 작품들은 이름이나 자에 쓰인 글자의 의미와 연관된 교훈을 전달하는 것을 공통점으로 하며, 관례 대신에 개명·개자를 계기로 하여 지어진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다.⁸⁾ 한편 清代 姚鼐(1731-1815)의 『古文辭類纂』에서는 명자설을 별도로 구분하거나 해설하지 않고, 이에 해당하는 작품을 贈序類에 포함시켰다.⁹⁾ 증서류에 수록된 작품들은 상대에게 주는 글이라는 것을 공통점으로 한다.

7) 명대 초기 吳訥(1372-1457)의 『文章辨體』에서는 문체의 종류를 60종으로 구분하면서 명자설을 별도의 문체로 구분하지 않고, 개별 작품의 제목에 쓰인 글자를 따라 序·說·解 등의 문체에 나누어 포함시켰다. 『문체명변』에서는 『문장변체』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121종으로 세분화면서, 명자를 제재로 한 작품들을 字說로서 별도로 분류하였다. 張海鵬(2013), 19쪽; 당윤희, 「명대 중기 시문선집 《文體明辨》의 문체론 고찰」,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8, 103-112쪽.

8) 『문체명변』 「자설」 조의 내용에 대한 상세는 권진옥(2019), 229-231쪽 참조.

9) 『고문사류찬』에서는 문체의 종류를 대분류 13종으로 구분하였고, 여기에서 명자설은 送序 등과 함께 증서류에 포함되었다. 대표작으로는 『문체명변』에도 실렸던 송대 歐陽脩·蘇洵의 작품과 함께, 명대 歸有光의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古文辭類纂序目』.

중국 문학사에서 唐代까지는 명자설의 특성을 가진 문장이 존재하나 소수에 그쳤고, 宋代에 이르러 명자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¹⁰⁾ 고대의 관례는 漢代 이래로 쇠퇴하여 사대부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司馬光의 『書儀』와 같이 古禮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시대의 예법으로 제시하는 시도가 나타났다.¹¹⁾ 이는 이후 朱熹가 그의 집안에서 사마광이 정한 관례의 체제를 따라 시행하고 『서의』를 보완한 『家禮』, 즉 『朱子家禮』를 편찬하는 등으로 사대부 사이에서 다소간의 성과를 나타내었으나, 절차를 갖춘 관례 의식이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¹²⁾ 다만 그 절차의 일부분인 자를 지어 주고 권면하는 전통이 남아 이어지면서, 송대부터 아버지가 자식의 자를 붙여 주면서 글을 짓거나 다른 문사에게 글을 청하는 풍속이 자리잡았다. 이와 함께 개명·개자를 하면서도 스승이나 명망 있는 문사에게 새로운 명자와 명자설을 받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러한 두 가지 기조 안에서 고대 자사를 대신하여 작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명자설 작품들이 나타났다.¹³⁾

2.2. 한국 문학사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명자설로 지목되는 작품들은 고려 중기에 등장하였다.¹⁴⁾ 당시 고려의 문단에는 歐陽脩·蘇軾·黃庭堅 등 송대 문호의 영향이 미치는 가운데, 특히 소식의 문학이 크게 유행하였

10) 張海鷗(2013), 16-18쪽; 이주해(2018), 223-228쪽.

11) 중국 역대 왕조에서의 관례 시행의 추이에 대한 상서는 노인숙, 『가례와 한국의 예학』, 서울 : 문사철, 2020, 415-420쪽 참조. 사마광이 새롭게 정리한 관례의 예법에 대한 상서는 김현수, 「사마광(司馬光)의 『서의(書儀)』 「관의(冠儀)」 연구 - 『儀禮』, 『朱子家禮』와 비교를 중심으로, 『울곡학연구』 31, 2015, 159-178쪽 참조.

12) 張海鷗(2013), 18쪽; 張曉婷, 「宋代“名字說”研究」, 山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7, 10쪽.

13) 馬黎麗, 「名字序文體源流和特徵」, 『黔西南民族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6.01, 興義民族師範學院, 2006, 35-36쪽; 이주해(2018), 227-232쪽.

14) 도승구(2021)는 『韓國文集叢刊』에 수록된 명자설 가운데 林椿(?-?)의 「浮屠可逸名字序」와 李奎報(1168-1241)의 「丁郎中鴻進字序」를 한국 명자설의 시초 격이 되는 작품으로 제시하였다. 도승구(2021), 16쪽.

다.¹⁵⁾ 현전하는 한국 명자설의 저자 가운데 연대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알려진 林椿(?-?)과 李奎報(1168-1241) 역시 송대 문호의 작품을 접하고 호평을 남겼다.¹⁶⁾ 특히 이규보는 당시의 소식 유행에 대하여 묘사한 기록을 남긴 것과 함께, 그 자신의 작품에도 소식의 영향이 나타나 있다.¹⁷⁾ 또한 이규보의 명자설 「丁郎中鴻進字序」에는 그에게 명자를 정해 달라며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서 가끔씩 부탁에 응하여 정해 주었다는 서술과 함께, 이 작품의 주인공인 丁鴻進의 요청에 따라 자를 제안하며 해설을 보태어 준 정황이 묘사되어 있다.¹⁸⁾ 이를 통하여 이규보가 활동하였던 13세기 전반의 고려에는 송의 문학이 유행한 것에 더하여, 문사에게 명자와 명자설을 요청하는 현상까지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규보 이후 李穡(1328-1396)을 비롯한 麗末鮮初의 문사들이 지은 다수의 작품에서도 유사한 정황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의 명자설 작품에 나타난 서술은 구양수·소식 등의 작품에서 문사에게 명자를 요청하거나 친구의 명자에 대한 해설을 써 주는 모습이 묘사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고려에 유입된 송대 문호의 작품에 포함된 명자설이 고려 중·후기의 문인 사회에 송과 유사한 명자설 관련 풍속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 15) 정선모, 「唐·宋古文의 初期受容樣相考 -對北宋 外交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48, 한국한문학회, 2011, 38-44쪽; 김춘란, 「구양수(歐陽修) 산문의 고려(高麗) 유입과 전파」, 『연민학지』 17, 연민학회, 2012, 140-142쪽; 류화정, 「麗末鮮初 黃庭堅 詩論의 수용 양상」, 『한국한문학회연구』 77, 한국한문학회, 2020, 377-381쪽 참조.
- 16) 조규백, 「고려시대 문인의 蘇東坡 詩文 受容 및 그 意義(1)」, 『退溪學과 韓國文化』 39,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6, 349-351쪽; 김춘란(2012), 142쪽; 류화정(2020), 377-378쪽 참조.
- 17) 조규백(2006), 341-342쪽; 조규백, 「고려시대 문인의 蘇東坡 詩文 受容 및 그 意義(2)」, 『退溪學과 韓國文化』 40,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7, 187-189쪽 참조.
- 18)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21 「丁郎中鴻進字序」.

3. 한국 명자설의 전개

3.1. 초기 작품군

한국 명자설의 첫 세대로 거론된 임춘과 이규보의 작품 가운데, 특히 이규보가 지은 2편의 명자설은 후대의 여러 작품들과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그의 작품에서는 철학적 사유에 기반하여 명자의 의미를 해설하면서 유가 경전의 구절을 활용하였다. 「정량증홍진자서」에서는 저자가 제안한 명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易經』의 효사를 인용하였고, 「蔡樞密松年字序」에서는 『論語』의 문장을 언급하였다.¹⁹⁾

100여 년 후 여말선초 시기에는 李穀·李穡 부자와 이색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명자설 작품이 출현하였으며, 그 가운데 이색의 작품이 20편에 달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²⁰⁾ 이곡의 「敬父說」에는 송대 성리학을 수용한 고려 후기 지식인의 사유가 드러나 있으며, 이색·鄭道傳 등의 작품에도 이러한 기조가 계승되어 나타났다.²¹⁾

여말선초의 명자설은 조선 전기에 역대 시문을 선별 수록하여 1478년 편찬한 『東文選』에 다수가 수록되어 있다.²²⁾ 『동문선』의 개별 작품에 서술된 저작의 동기는 작자가 지인의 요청에 따라 명자를 짓거나 바꾸어 준 경우, 지인의 기존 명자에 대한 해설을 요청받아 해설해 준 경우가 주로 보인다.²³⁾ 작자와 상대의 관계가 기술된 작품에서는 상대가 저자의 친구·동료·문생·제자 등으로 나타나는데, 드물게는 저자의 스승이 자설을 요청한 權近의 「子虛說」, 제삼자에게 요청을 전달받아서 면식이 없는 인물의 자를 짓고 자설을 쓴 金宗直의 「日本國居士重俊字說」의 사례도

19) 『東國李相國集』卷21 「丁郎中鴻進字序」; 『東國李相國後集』卷11 「蔡樞密松年字序」.

20) 이색의 명자설 20편의 내용에 대한 상세는 유이경(1997) 참조.

21) 홍성욱, 「고려 후기 논변체 산문 연구」, 『어문논집』 36, 안암어문학회, 1997, 247-253쪽.

22) 『동문선』 및 『續東文選』에 수록된 설 작품 중에서 人名(名·字·號)을 제재로 한 작품은 39편이며, 광의의 명자설로서 物名을 제재로 한 작품은 11편이 있다. 김정아 (2001), 3-5쪽; 권익기(2021), 14-20쪽.

23) 『동문선』의 인명 명자설 39편의 저자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는 권익기(2021), 16-20쪽 참조.

있다. 이색의 「浩然說贈鄭甫州別」·「伯中說贈李狀元別」은 명자설이면서 상대를 전별하는 취지를 전달하는 送序의 역할을 겸하였다.

이색의 「茂珍金氏三子名字說」과 같이 친구의 요청으로 친구 아들의 명자를 지은 경우도 있으나, 그 내용에서 후대의 작품과 같이 관례와 결부되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관직에 있는 사람이 아직 자가 없어 새로이 지어 주기를 요청하는 사례나²⁴⁾ 朋友가 자를 지어 주는 것을 통례로 여기는 인식²⁵⁾ 여러 문사의 작품에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여말선초의 명자설에서 묘사된 풍속은 성인이 되는 관례를 치르며 자를 짓는 字冠者禮의 예법과는 이질적인 면모를 보인다.

3.2. 관례의 보급

사대부 사회에 『朱子家禮』의 예법을 따른 의례가 보급되는 과정에서, 조선 전기에는 冠婚喪祭 가운데 상·제례가 중심이 되고 관·혼례는 비교적 주목받지 못하였다. 1474년(성종 5) 편찬된 『國朝五禮儀』에 관례가 포함되어 국가 제도로서 정립되고, 이후에도 조정에서 관례의 시행에 관한 논의가 수차례 일어났으나, 민간에서는 좀처럼 확산되지 않고 있었다.²⁶⁾

그러다 시간이 지나며, 유학자들 사이에서 『주자가례』의 해석과 보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禮學 연구가 상·제례 중심에서 점차 관·혼례로 확장되었다.²⁷⁾ 이에 따라 16세기 말엽에 이르러서는 예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자제의 관례를 시행하면서 그 일환으로 자관자례와 결부된 명

24) 『東文選』 卷96, 李崇仁 「忠原判官李君及字說」·李穡 「茂珍金氏三子名字說」; 卷97 李穡 「孟周說」·李穡 「孟陽說」; 卷98 權近 「義民字說」.

25) 『東文選』 「忠原判官李君及字說」, “朋友字之, 蓋禮也. 余其敢辭?”; 「義民字說」, “字者, 朋友之相命也. 予與子舊, 其何辭?”; 卷98 姜頌德 「字洪燕山景漸說」, “蓋朋友字之, 古也, 余奚敢辭?”

26) 조선 전기 조정에서의 관례 관련 논의에 대한 상세는 노인숙(2020), 421-424쪽; 이문주, 「성인식으로서의 관례의 구조와 의미분석」, 『유교사상문화연구』 17, 한국유교학회, 2002, 44-48쪽 참조.

27) 15-16세기 『주자가례』 연구의 전개 양상에 대한 상세는 장동우, 『家禮』 註釋書를 통해 본 朝鮮 禮學의 進展過程, 『동양철학』 34, 한국동양철학회, 2010, 243-249쪽 참조.

자설을 짓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6세기 예학의 주요 인물로 『주자가례』의 주석서 『家禮註說』을 저술한 宋翼弼(1534-1599)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송익필은 『가례주설』에서 자관 자례와 관련하여 『의례』 「사관례」의 고대 자사²⁸⁾ 외에도 朱子가 스승 劉子翬에게서 받은 자사와 주자 자신이 두 조카에게 지어 준 자설 등을 법식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²⁹⁾ 이와 함께, 송익필을 사사하고 역시 예학을 연구한 金長生(1548-1631)의 큰아들 金鑾의 자를 지어 주며 「金鑾字直伯說」을 썼다.

나의 벗인 金君 希元(김장생의 자)은 굽은 것을 싫어하고 곧은 것을 좋아하는 자이다. 아들의 관례를 치르려고 하면서 이름을 鑾이라 하고, 나에게 자를 지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내가 直伯이라고 자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³⁰⁾

이 작품에는 김장생이 김은의 관례를 치르려 하면서 송익필에게 자를 요청해 온 것에 응하여, 이름에 쓰인 “鑾”과 연관되는 의미를 부여한 “直”을 써서 자를 直伯으로 정해 준 전말이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송익필은 “直”의 의미와 관련된 유가 경전 및 주자의 논설을 인용하여, 젊은이에게 그 의미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송익필은 자신의 아들이 15세가 되는 해에 관례를 치르려 하며 李珥에게 자설을 요청하기도 하였다.³¹⁾

김장생은 『주자가례』를 상세히 해설하고 보완한 『家禮輯覽』을 저술하

28) 명자설을 별도로 짓지 않는 경우에는 「사관례」 자사를 기본 격식으로서 사용하였다. 대표적으로 조선 왕실의 관례에서 「사관례」 자사의 일부 문구를 변형하여 사용한 예가 있다. 「世子[肅宗]冠禮時祝文5」(장서각 RD02476), 「英親王字辭」(장서각 RD00500).

29) 宋翼弼, 『龜峯集』 卷7 「家禮註說一·冠禮」, “劉屏山字朱子, 吳草廬字虞采, 虞集, 皆有辭, 今宜爲式. 又朱子劉瑾、魏恪二字, 說皆可爲式.”

30) 『龜峯集』 卷3 「金鑾字直伯說」, “吾友金君希元, 惡曲喜直者也, 將冠其子而名之以鑾, 囑余字之. 余以直伯爲字曰…”

31) 『龜峯集』 卷5 「答叔獻書」, “子就大今年十五, 欲加冠於首, 爲字說以勸是望.” 이이가 이 요청에 응하여 자설을 써 주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여 후대 예학의 모범이 되었다. 그가 지은 명자설 작품은 보이지 않으나, 손자 金益熙(1610-1656)가 그 아들의 관례를 치르며 「冠子萬增說」을 썼다. 1649년(인조 27) 정월에 지은 이 작품에는 김익희가 예학자의 후손으로서 가진 인식이 드러나 있다. 먼저 고대 관례의 각 절차가 가지는 의미를 거론한 후, 자기 가문이 이를 대대로 지켜 왔으나 자신이 마침 泰安郡守로 내려와 있어서 15세를 맞아 관례를 치르는 아들 金萬增의 예식 절차를 온전히 갖추지 못하게 된 아쉬움을 드러내는 한편, 절차를 갖추는 것보다도 도리를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아들을 격려하였다.³²⁾

權好文(1531-1587)은 李滉의 문하에 있으면서, 역시 이황 문하에서 예학을 연구한 柳成龍·金誠一 등과 교류하였다. 그는 조카이자 양자인 權行可의 관례를 치르면서 자를 지어 준 전말을 기술한 「猶子行可字說」을 썼다.³³⁾

김장생의 예학을 계승한 17세기의 학자들도 서로의 교유 관계 속에서 명자설을 주고받았다. 김장생·金集 부자의 문인인 兪槩(1607-1664)·李惟泰(1607-1684)·尹宣舉(1610-1669)가 대표적이다. 이유태의 「兪命丙字說」은 유계의 장남 兪命胤(초명 命丙)에게 써 준 자설이고, 윤선거의 「兪命弼字直之說」은 유계의 차남 兪命弼에게 지어 준 것이다. 또한 유계는 윤선거의 조카 尹掄에게 주는 「尹掄字說」을 썼다.³⁴⁾ 그 중에서도 「유명병자설」에는 저작의 계기가 되는 관례의 정황이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다.

나의 벗 兪武仲은 몇월 며칠에 자기 아들의 관례를 치르려 하면서, 나에게 賓이 되어 주기를 청하였다. 賓이 되는 사람은 姬公(周公)의 『儀禮』에서는 점을 쳐서 뽑고, 晦翁(朱子)의 『家禮』에서는 가려 뽑는 법이다. 제대로 역할을 받들지 못할까 두려웠으나, 간곡한 우의를 그르치기도 어려웠기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

32) 金益熙, 『滄洲遺稿』 卷15 「冠子萬增說」.

33) 權好文, 『松巖集』 續集 卷6 「猶子行可字說」, “余故曾名猶子曰行可, … 今將加冠, 字之以士遇.”

34) 李惟泰, 『草廬集』 卷23 「兪命丙字說」; 尹宣舉, 『魯西遺稿』 卷16 「兪命弼字直之說」; 兪槩, 『市南集』 卷20 「尹掄字說」.

三加禮를 마치면 계단 아래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아들에게 ‘某父’와 같은 자를 일러주면 冠者가 대답하는 것이 예법이다. 그러나 나는 모르겠다. 내가 자를 지어 주는 것이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 준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관자가 응답하는 것이 내가 자를 지어 준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모르겠다. 그렇지만 한마디 말을 전해 주지 않을 수는 없으니, 이 역시 옛사람들이 자를 풀이하여 주었던 뜻에 맞는 것이다.³⁵⁾

이유태는 「유명병자설」의 서두에서 『의례』와 『주자가례』를 근간으로 한 예법에 따라 친구의 아들이 치르는 관례의 빈으로 초청받은 일을 명시하고, 관례의 절차를 따라 성인이 되는 관자에게 자를 지어 주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이어서 관자의 이름에 쓰인 “丙”에서 “불[火]”의 의미를 취하고 이를 “밝음[明]”과 연결하여 자를 “景明”으로 지어 주고서, “明”과 관련된 유가 경전의 구절과 주자·程子 등 성리학자들의 논설을 인용하여 마음의 덕을 밝히는[明] 공부에 힘을 쓸 것을 주문하였다.³⁶⁾

관례가 성행한 17세기에는 이와 같이 관례와 결부된 명자설 작품이 다양하게 나타났다.³⁷⁾ 한편, 여성의 성년례인 笄禮에 관하여는 『주자가례』에서 남성의 관례에 준하여 시행하면서 역시 자를 짓고 축사를 하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³⁸⁾ 실제로 계례를 시행하고 기록을 남긴 사례는 찾기 어렵다. 尹拯(1629-1714)이 예법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답에서는 계례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를 시행하지는 않고 있지만 시행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李世弼(1642-1718) 등이 계례를 시행하였다는 언급을 덧붙이기도 하였다.³⁹⁾

35) 「俞命丙字說」, “吾友俞武仲, 以月日冠其子, 請余賓. 賓, 姬公『儀禮』之所筮也, 晦翁『家禮』之所擇也. 懼不能供事, 而重違事契之勤, 不得以辭也. 三加畢, 就階下席, 告其子曰某父, 冠者對, 禮也. 然余不敢知, 余所以字之者, 不拂於賢父命名之義否? 冠者所以應之者, 有契於不佞奉字之旨否? 不得無一言贈之, 亦古人敘其字之意也.”

36) 이은영(2006), 92-93쪽.

37) 이은영(2006), 83-93쪽 참조.

38) 朱熹, 『家禮』卷2, “女子許嫁, 笄. … 乃字. 如冠禮, 但改祝辭 ‘髦士’ 爲 ‘女士’.”

39) 尹拯, 『明齋遺稿』卷2 「與李燾希敬」, “(女子笄) 既載『家禮』, 則朱子之所已行可知矣. 今人患不行之耳, 果行之則未必駭俗. 士友家如李君輔, 亦行之云.”

관례와 결부된 명자설 작품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유형을 이루는 동안, 관례와 무관한 명자설도 계속해서 지어졌다. 宋時烈(1607-1689)의 명자설은 대부분 제자가 가진 자에 해설을 부가하거나 자를 바꾸어 주면서 지은 작품이다. 또 林象德(1683-1719)·李德懋(1741-1793) 등은 자신의 자를 바꾸면서 삶의 새로운 지향점을 설정하는 의미를 담아 명자설을 썼다.⁴⁰⁾ 徐宗華(1700-1748)는 그의 일족인 徐命臣이 특별히 열린 黃柑製 시험에서 장원을 차지하자, 이를 기념하여 그의 자에 쓰인 “直”을 활용한 4언체 문장을 지었다.⁴¹⁾ 이외에 희소한 사례로 국왕이 지은 명자설,⁴²⁾ 여성에게 지어 준 명자설⁴³⁾ 등이 있다.

3.3. 전통의 위기

사대부의 의례로 정착하였던 관례는 18세기를 거치면서 점차 혼례의 준비 단계로서의 관습적 의례로 그 의미와 규모가 축소되었다.⁴⁴⁾ 나아가 19세기 후반부터는 외세의 개입과 맞물려 開化 정책이 진행되며 전통 의례의 입지가 좁아져 갔다. 특히 1895년에 이르러서는 斷髮令이 반포되면서, 기존의 예법에 따른 관례를 거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훼손되는 데에 저항하였던 사람들은 당시의 세태에 맞서 전통 의례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李恒老를 종장으로 한 華西學派의 활동이다. 이들은 유학의 도리와 예법이 없는 서양 세력을 禽獸로 간주하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사람이 금수로 전락하는 사태를 경계하였다.⁴⁵⁾ 이들은 예법을 사람이

40) 권진옥(2019), 239-242쪽.

41) 徐宗華, 『藥軒遺集』 卷5 「元直字說」.

42) 純祖, 『純齋稿』 卷3 「鄭君漪清夫字序」. 순조가 1801년(순조 1)에 莊獻世子の 외손인 鄭漪의 자를 지어 주며 썼다.

43) 王德九, 『滄海集』 卷2 「家婦淑人馮氏改名字說」. 조선에 정착한 明 遺民의 후손인 왕덕구가 명의 예법을 계승하려는 취지로, 1837년(헌종 3) 함께 노년에 접어들던 부인 馮氏에게 이름과 자를 지어 주며 썼다.

44) 송미화, 「조선 중기 이후 영남지역 관례의 구성 체계와 그 문화적 의미 변화」,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51-52쪽.

사람으로 있을 수 있는 이유의 하나로 인식하였고,46) 문자적인 학습만이 아닌 실천 역시 중시하였다.

화서학파의 성원들은 習禮, 즉 예법의 실습을 중시하여 습례를 위한 공간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서 서로 도우며 전통 의례를 실천하였다. 이들이 습례의 대상으로 삼은 의례는 鄉飲禮·鄉射禮 등의 향촌 의례와 관혼상제의 일상 의례를 포괄하였다.47) 특히 관혼상제 중에서 당사자의 친족 이외의 인물이 의례에 참여할 수 있는 관례의 경우, 서로의 자제가 관례를 치르게 되었을 때에 빈으로 참석하여 명자설을 지어 주거나,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명자설을 써서 보내 주었다.48)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이전 시기를 능가하는 수량의 명자설 작품이 발생하였다.49)

이들의 명자설은 이전 시대의 작품들과 형식상으로 두드러지는 차이는 없으나, 일부 작품에서 유가 전통이 위기에 처한 시대를 바라보는 저자의 인식이 드러난다.

대개 듣건대, 濂溪 周先生(周敦頤)께서는 진나라의 분서갱유와 한나라의 거짓된 학설 이후에 태어나서, 공자의 “易有太極”이라는 가르침을 계승하였다. 그리하여 『太極圖說』을 세우고 글을 지어, 위로는 洙泗의 정통을 잇고 아래로는 洛闕의 학문을 열었다. 어지러운 학설을 비바람이 쓸어내듯 하여서 세상을 다시 만든 공모는 고금을 통틀어 이보다 높은 것이 없다.

45) 화서학파의 서양 인식에 대한 상제는 오영섭, 「위정척사사상가들의 사유구조와 서양 인식 -화서학파의 경우를 중심으로-」, 『승실사학』 30, 승실사학회, 2013 참조.

46) 柳重教, 『省齋集』 卷39 「敬題皇考戒家衆辭後」, “所謂尚禮節者, 往哲有言, 禮一失則爲夷狄, 再失則爲禽獸. 是則人之所以爲人, 與其所以爲華夏者, 在乎禮而已.”

47) 김대식, 「화서학파(華西學派)의 습례(習禮)와 행례(行禮) 공부」, 『교육사상연구』 28. 1, 한국교육사상학회, 2014, 5-8쪽.

48) 김대식(2014), 12-14쪽.

49) 도승구(2021)는 『韓國文集叢刊』에 수록된 명자설 작품 중 237명의 저자가 지은 737편을 집계하였다. 이 집계를 기준으로 작품 수가 10편 이상인 15명 가운데 12명이 19세기에 출생하였고, 전체 인원의 약 5%에 해당하는 이 12명의 작품 수는 총 272편으로 전체 작품 수의 36%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가운데 화서학파의 성원으로는 金平默·柳重教·朴文一·柳麟錫이 있다.

… 王道가 쇠퇴하여 霸道로 전락하고, 패도가 쇠퇴하여 夷狄으로 전락함이 지극해지면, 이 학문이 강론되지 않고 이 도리가 마침내 끊기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의 형상을 한 자들이 차츰 금수로 변하고 만다. 금수가 되어 버리면 그 때문에 온 세상이 장차 결판나게 되는 형세로 흐를 것이니, 비참하지 않은가? 이러한 때에 자네 而極(尹相濂)이 받은 바는 바로 공자의 가르침이 자 주 선생이 평소 밝히던 도리이다. 그대의 관례에 부형이 이름을 정하여 주어 주고, 이 늙은이가 자를 지어 축원하노라.⁵⁰⁾

崔益鉉(1833-1906)의 『尹相濂字說』은 尹相濂의 관례를 치를 시기를 맞이한 아버지 尹亨三의 부탁에 따라 자를 지어 주며 쓴 글이다. 최익현은 윤상렴의 이름에 쓰인 “濂”을 북송의 성리학자 周敦頤의 호 “濂溪”와 연결하고, 주돈이가 쓴 성리학의 명저 『太極圖說』과 연관시켜서 자를 “而極”으로 지어 주었다. 최익현은 자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유가의 도리가 끊기고 사람이 금수로 변해 가는 세대를 경계하며, 후학에게 사람을 사담답게 하는 학문에 매진하기를 당부하였다.

공자께서 이전의 聖人을 계승한 사업으로서 『春秋』보다 큰 것이 없다. 『춘추』의 문장은 수만을 이루고 그 요지는 수천이나, 그 뜻에 있어서는 中華를 높이고 夷狄을 물리치는 일보다 큰 것이 없다. 程子께서는 공자의 천년 뒤에 태어나서, 날마다 외적이 침입하던 시기에 『춘추』의 傳을 저술하여 유학의 도로 삼았고, 오직 顔子만이 들었던 말을 가져다가 나라 다스리는 답으로 증험하였으니, 이는 또한 위로는 임금부터 아래로 서민까지, 집집마다 배우고 사람마다 지켜야 하는 것이다. 자네 孟軻가 마땅히 이름을 돌아보고 의를 생각하며 자신을 돌이켜 구해야 할 점으로 이것이 세 번째이다.⁵¹⁾

50) 崔益鉉, 『勉菴集』 卷16 「尹相濂字說」, “蓋聞濂溪周先生, 生於秦焚漢僞之後, 祖述孔夫子易有太極之訓, 而建圖屬書, 上接洙泗之統, 下啓洛閩之學. 其汎掃風雨, 再造區宇之功, 歷選古今, 未有尙焉者也. … 及王降而霸, 霸降而夷狄至, 則此學不講, 此道遂息, 而有人之形者, 駸駸然化爲禽獸矣. 化爲禽獸之效, 則六合之內, 其勢將魚肉矣, 不亦慘乎? 于斯時也, 而極所受者, 殆夫子之訓, 而亦周先生平日講明之道也. 其冠也, 父兄定名以尊之, 老夫字而視之.”

51) 金平默, 『重菴集』 卷40 「柳寅殷字說」, “夫子之所以繼往聖, 其事莫大於 『春秋』. 『春秋』文成數萬, 其指數千, 而其義莫大於尊中夏而攘夷狄. 程子生於洙泗千載之後,

나의 벗인 거사 愼汝圭 씨가 그의 아들을 宗漢이라 이름짓고, 나에게 자를 물었다. 나는 삼가 생각하건대, 大禹가 홍수를 다스리자 長江과 漢水가 바다로 모여들었고, 장강과 한수가 바다로 모여드니 천하의 물이 동쪽으로 흐르지 않음이 없었다. 공자께서 『춘추』를 짓자, 사방의 이적이 中國을 받들어야 하고 모든 나라가 천자를 받들어야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었으니, 그 자취가 대우의 일과 같다. 그러므로 春秋大一統을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두 그 일에 비유한다. 아! 지금 천하의 물이 바다로 흐르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고, 옆으로 흘러 범람하는데 그 기세를 누를 수가 없다. 그리하여 거사가 이를 가져다 아들의 이름을 지었으니,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⁵²⁾

金平默(1819-1891)의 「柳寅殷字說」, 柳重教(1832-1893)의 「愼宗漢字說」에서는 이들이 衛正斥邪의 이론적 근거로 삼은 『춘추』의 尊華攘夷 관념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이적에 해당하는 서양과 일본이 유가의 전통을 위협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성년을 맞이하는 젊은이들에게 전통의 수호에 힘쓰기를 당부하였다.

김평묵과 유종교의 뒤를 이은 柳麟錫(1842-1915)은 乙未事變 이후 의병 활동에 가담하여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명자설 작품에서 당시의 혼란상을 거론하며, 힘든 시기에 관례를 치르는 젊은이에게 전통을 지키는 데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다.

선비는 마땅히 드넓고 굳세어야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고 먼 길을 갈 수 있다. 子毅어, 먼저 드넓음을 가져서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고, 그리고 굳셈을 가져서 먼 길을 가야 할 것이니, 굳세지 않으면 어찌 멀리까지 나아가면서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스스로 선비가 되기를 기

朝夕陸沉之時，而敍『春秋』之傳，以爲斯道也，惟顏子聞之，引此爲邦之答以證之。是又上自君公下至匹庶，家講而人守者也。孟軻之所當顧名思義，反身以求之者，此三也。”

- 52) 柳重教, 『省齋集』卷37 「愼宗漢字說」, “吾友愼居士汝圭氏名其子曰宗漢, 問字於重教. 重教竊惟, 大禹抑洪水而江漢朝宗于海, 江漢朝宗于海則天下之水無不東矣. 孔子作『春秋』而人皆知四夷之當尊中國, 萬國之當尊天王, 其迹亦猶是也. 故說‘春秋大一統’者, 必借此以寓義焉. 噫! 今天下之水, 無所於朝宗久矣. 橫流之汎濫, 其勢不可抑也. 居士乃取此而名子, 其意何哉?”

약하지 않았던가? 그대는 斂齋(李鍾夏) 옹의 아들이다. 그대의 부친께서는 이 일을 행하였고, 이 일을 그대에게 남겨주어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니, 그대는 더욱 선비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또 지금 천하에는 모조리 이적과 짐승들이고, 재앙이 일어 小華인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에 맞서기 위한 모책은 仁을 실현하는 것이 급선무이니, 부친께서는 장차 이 일을 하려 한다. 그러니 그대도 역시 마땅히 그 모책을 이어받아 종사하여야 한다. 진실로 그대가 능히 인에 뜻을 두어서 드넓고 곧세게 될 수 있다면, 이 일 또한 저절로 그 안에 있게 될 따름이다.⁵³⁾

품을 따르며 道를 행하는 자를 華夏라 하고, 선에 반하는 도를 행하는 자를 夷狄이라 한다. 화하는 귀하고 이적은 천하니, 그 귀천은 또한 천하 만고의 정해진 이치이다. 인류가 된 자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겨 드높이고 천한 것을 천하게 여겨 물리치니, 이같이 할 따름이다. 지금 천하에서는 길한 것을 흉하게 알고 흉한 것을 길하게 알며, 귀한 것을 천하게 알고 천한 것을 귀하게 안다. 사람들이 모두 이같이 하니 그러지 않는 이가 드물어, 정해진 이치가 뒤집혀 끝도 없이 변하고 말았다.

그러한 와중에도 마땅히 뜻을 높게 지니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마땅히 길한 것을 길하게 여겨서 행하고, 흉한 것을 흉하게 여겨서 아니 행하니, 나는 바로 하늘이 내린 선함을 지닌 자이다. 나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겨서 드높이고, 천한 것을 천하게 여겨서 물리치니, 나는 바로 三才에 참여하여 사람 된 자이다.” 어찌 내가 뜻을 지니는 데에 그치겠는가? 내가 이미 뜻을 지녔으면 또한 남에게도 뜻을 지니게 할 수 있다. 이같이 한 뒤에야 천하의 대장부가 되는 것이다.⁵⁴⁾

53) 『毅菴集』 卷40 「李遠誅字說」, “士矣宜弘宜毅, 以勝重致遠. 子毅乎! 先弘而勝其重, 乃毅而致其遠, 非毅豈能遠到而克終其重? 子毅不自期以士乎? 子毅斂齋翁之子也. 翁爲是事, 是事遺之子毅而欲有事, 子毅尤不可以不士也. 且也今天下盡夷獸, 而禍至于減小華吾邦. 爲是之謀, 實仁者急先務, 而翁將爲之矣. 則子毅宜亦承厥謀而從事. 苟子毅之能志仁而弘且毅, 是事也亦自在其中已矣.”

54) 『毅菴集』 卷40 「金民初字說」, “有以循其善爲道者曰華夏, 以反其善爲道者曰夷狄. 華夏則貴, 夷狄則賤, 其爲貴賤, 亦萬古天下之定理也. 爲人類者, 貴其貴而崇之, 賤其賤而斥之, 如斯而已矣. 今天下凶其吉其凶, 賤其貴貴其賤, 人皆如是而鮮不如是, 定理反矣, 變之罔極也. 正宜其中卓然有志曰: ‘我當吉其吉而爲之, 凶其凶而不爲’”

「李遠洙字說」과 「金民初字第」은 노년의 유인석이 국경을 벗어나 연해주·간도 등지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지은 글로, 국외에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적에게 침해당한 성리학적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뜻을 견지하였던 점이 드러나 있다.⁵⁵⁾ 그는 동지의 자체가 성년을 맞이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명자설을 써서 이들에게 자신과 같은 태도를 지켜 나가기를 권면하였다.

화서학과 이외에도 蘆沙學派·寒洲學派 등의 학맥에 속한 여러 유학자들이 명자설을 지은 가운데, 노사학과의 종장 奇正鎭의 손자로서 학맥을 계승한 奇宇萬(1846-1916)은 자설 57편과 자사 33편에 달하는 방대한 작품을 남겼다. 그는 제자들의 자를 짓고 명자설을 써 주면서 사제간의 결속을 다지고, 유학을 익히는 독서인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⁵⁶⁾

4. 맺음말

이상으로 명자설의 문체론적 분류와 연원, 그리고 한국 명자설의 시기별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고의 2장에서는 명자설에 대한 문체론적 설명과 함께 중국 문학사에서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 후, 한국 명자설이 처음으로 등장한 고려 중기부터 여말선초 시기의 상황을 검토하였다. 명자설은 명자로 쓰인 글자의 의미와 전고 등을 해설하고 명자를 받는 당사자를 권면하고 축원하는 글이다. 중국 명대 서사증의 『문체명변』에서는 명자를 제재로 하는 설이 여타의 설과 쓰임이 다르다는 점에 의하여 명자설을 독자적인 문체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명자설의 연원을 『의례』 「사관례」에 수록된 고대 관

之, 吾乃天降衷之有善者也. 我當貴其貴而崇之, 賤其賤而斥之, 吾乃參三才而爲人者也. 豈吾志之而已? 吾旣志則亦可使人而志焉矣. 如此然後爲天下大丈夫也.”

55) 유인석의 위정척사 의식과 국외 의병 활동에 대한 상제는 이재석, 「국권상실기 유인석의 척사위정론 연구」, 『인문학연구』 27,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참조.

56) 유영봉, 「『儒學種子』 保全을 위한 保全 松沙 奇宇萬의 문학적 활용 - 字辭와 墓碣銘을 중심으로 -」, 『漢文學報』 43, 우리한문학회, 2020, 399쪽.

례의 자사로 제시하고, 그 취지를 계승하여 명자의 의미를 해설하고 명자를 받는 당사자를 권면하는 내용의 작품을 명자설로 분류하였다.

중국에서는 고대 관례의 예법이 한대 이후로 점차 과행하였다가, 송대에 이르러 고대 관례의 의의를 계승하여 일종의 약식 절차로서 명자설을 짓는 풍조가 자리잡았다. 고려에서는 13세기경부터 명자설 작품이 출현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고려에 유입된 송의 문학의 영향으로 송의 명자설 관련 풍속과 유사한 풍속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 한문학에서의 명자설을 시기별로 개관하고, 명자설 저작의 동기로서의 관례가 보급되고 쇠퇴하는 흐름을 따라 나타난 시기별 작품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국 명자설은 고려 중기 임춘과 이규보의 작품으로 처음 나타난 이후, 여말선초 사대부의 성리학적 사유를 반영한 작품들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의 명자설 작품에는 『가례』에 수록된 관례의 예법이 정착하기 이전에 존재한 풍속이 드러나 있다.

16세기 후반부터는 『가례』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고 관례가 사대부의 의례로 보급됨에 따라, 지인의 자제에게 자를 지어 주면서 명자설을 짓는 사례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자가 지인 자제의 관례에 초빙되어 설을 짓게 된 정황을 서술한 형태의, 관례와 결부된 명자설이 출현하였다.

19세기 후반에는 외세의 영향에 의한 개화 정책으로 전통 의례가 쇠퇴하는 환경에서, 위정척사를 주장하는 성리학자들이 전통 예법의 보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량의 명자설을 지었다. 그 중 대표적으로 화서학과 성원들의 작품에서 전통적 가치가 훼손되는 시대를 향한 위기 의식과 전통 수호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명자설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이에 기반하여 명자설 문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도출할 것을 지향하였으나, 일부의 작품을 따라 대략의 경향을 살피는 데에 그쳤다. 앞으로 시대나 인물의 범위를 한정하여 보다 깊게 분석하는 등의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고문헌 및 국역서

- 「世子[肅宗]冠禮時祝文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디지털 자료
(청구기호 RD02476).
- 「英親王字辭」, 장서각 소장본 디지털 자료(RD00500).
- 權好文, 『松巖集』, 국역 『송암집』,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金益熙, 『滄洲遺稿』, 고전종합DB.
- 金平默, 『重菴集』, 『韓國文集叢刊』, 고전종합DB.
- 柳麟錫, 『毅菴集』, 국역 『의암집』, 제천 : 제천문화원, 2009.
- 柳重教, 『省齋集』, 국역 『성재집』, 고전종합DB.
-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국역 『동국이상국집』, 고전종합DB.
- 李惟泰, 『草廬集』, 『한국문집총간』, 고전종합DB.
- 徐居正 等編, 『東文選』, 국역 『동문선』, 고전종합DB.
- 徐宗華, 『藥軒遺集』, 『한국문집총간』, 고전종합DB.
- 宋時烈, 『宋子大全』, 『한국문집총간』, 고전종합DB.
- 宋翼弼, 『龜峯集』, 『한국문집총간』, 고전종합DB.
- 純祖, 『純齋稿』, 『한국문집총간』, 고전종합DB.
- 王德九, 『滄海集』,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디지털 자료(청구기호 古3424-5).
- 尹拯, 『明齋遺稿』, 국역 『명재유고』, 고전종합DB.
- 崔益鉉, 『勉菴集』, 『한국문집총간』, 고전종합DB.
- 徐師曾, 『文體明辯』, 하버드-엔칭 도서관 소장본 디지털 자료
(Record ID 990077736820203941).
- 姚鼐, 『古文辭類纂』,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98.
- 朱熹, 『家禮』, 임민혁 역, 『주자가례 : 유교 공동체를 향한 주희의 설계』, 서울 :
예문서원, 1999.

단행본 및 논문

- 노인숙, 『가례와 한국의 예학』, 서울 : 문사철, 2020.
- 신용호 · 강헌규, 『先賢들의 字와 號』, 서울 : 전통문화연구회, 1997.
- _____, 『漢文學과 漢文教育 . 下』, 서울 : 보고사, 2004.
- _____, 『명설과 자설』, 서울 : 전통문화연구회, 2014.
- 유이경, 『조선 중기 說 장르 전개의 문화 사회학적 연구』, 서울 : 파랑새미디어, 2019.
- 이복규, 『한국인의 이름 이야기』, 서울 : 學古房, 2012.
- 고영진, 「조선후기 가례주석서의 특성」, 『한국계보연구』 6, 한국계보학회, 2016.
- 권익기, 「『동문선(東文選)』의 인명설(人名說) 고찰 - 이름과 이름짓기를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78,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 2021.
- 권진옥, 「명자설(名字說)의 문학적 재고(再考)」, 『동양고전연구』 75, 동양고전학회, 2019.
- 김대식, 「화서학과(華西學派)의 습례(習禮)와 행례(行禮) 공부」, 『교육사상연구』 28.1, 한국교육사상학회, 2014.
- 김춘란, 「구양수(歐陽修) 산문의 고려(高麗) 유입과 전파」, 『연민학지』 17, 연민학회, 2012.
- 김현수, 「사마광(司馬光)의 『서의(書儀)』 「관의(冠儀)」 연구 - 『儀禮』, 『朱子家禮』와 비교를 중심으로」, 『울곡학연구』 31, 울곡연구원, 2015.
- 당윤희, 「명대 중기 시문선집 <文體明辨>의 문체론 고찰」, 『중국학논총』 61,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8.
- 도승구, 「『名字說』의 특성과 교육적 활용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류화정, 「麗末鮮初 黃庭堅 詩論의 수용 양상」, 『한국한문학연구』 77, 한국한문학회, 2020.
- 송미화, 「관례(冠禮)의 전통과 인성교육적 함의」, 『대동철학』 89, 대동철학회, 2019.
- _____, 「조선 중기 이후 영남지역 관례의 구성 체계와 그 문화적 의미 변화」,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심경호, 「이름과 호의 한자문화」, 『어문연구』 46.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8.
- 양현승, 「韓國 '說' 文學 研究 : '寓言의 說'의 敘事性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유영봉, 「『儒學 種子』 保全을 위한 保全 松沙 奇宇萬의 문학적 활용 - 字辭와 墓碣銘을 중심으로 -」, 『漢文學報』 43, 우리한문학회, 2020.

- 유이경, 「牧隱 李穡의 名字說에 나타난 思想」, 『연구논총』 33,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7.
- 이문주, 「성인식으로서의 관례의 구조와 의미분석」, 『유교사상문화연구』 17, 한국유교학회, 2002.
- 이은영, 「祝辭와 字說을 통해 본 冠禮: 17세기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학』 29.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 이재석, 「국권상실기 유인식의 칙사위정론 연구」, 『인문학연구』 27,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 이주해, 「명자설(名字說)과 아버지의 글쓰기- 송대(宋代)를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44,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2018.
- 장동우, 「『家禮』 註釋書를 통해 본 朝鮮 禮學의 進展過程」, 『동양철학』 34, 한국동양철학회, 2010.
- 정선모, 「唐·宋古文의 初期受容樣相考 -對北宋 外奘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48, 한국한문학회, 2011.
- 조규백, 「고려시대 문인의 蘇東坡 詩文 受容 및 그 意義(1)」, 『退溪學과 韓國文化』 39,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6.
- _____, 「고려시대 문인의 蘇東坡 詩文 受容 및 그 意義(2)」, 『退溪學과 韓國文化』 40,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7.
- 홍성욱, 「고려 후기 논변체 산문 연구」, 『어문논집』 36, 안암어문학회, 1997.
- 馬黎麗, 「名字序文體源流和特徵」, 『黔西南民族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6.01, 興義民族師範學院, 2006.
- 張海鷗, 「宋代的名字說與名字文化」, 『中山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3(05), 中山大學, 2013.
- 張曉婷, 「宋代“名字說”研究」, 山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7.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s of *Myeongjaseol*(名字說) by
historical period

Kim, Seonggyun
(Korea University)

The *Myeongjaseol*(名字說, Explanatory essays on names) refers to a literary genre of explanatory writing(說) that explicates the meaning of characters used in an individual's name(名) or courtesy name(字). Originating from the ancient Chinese tradition of valuing a person's name, this genre formally emerged during the Song Dynasty era. Influenced by the Song, *Myeongjaseol* in Sino-Korean literature appeared in the late Goryeo period, and was authored continuously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This study aims to classify and examine major *Myeongjaseol* works by historical period, thereby comparing and explaining the characteristics that differentiate each era's corpus. To this end, this study synthesizes various existing research on specific periods and incorporates biographical findings regarding the author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periodic features.

Through these methods, the *Myeongjaseol* works in Sino-Korean literature are categorized into three periods. The analysis reveals how a new type of *Myeongjaseol* emerged in tandem with the int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Zhu Xi's Family Rituals*(朱子家禮) within the Joseon literati society. Furthermore, it elucidates how the unique historical circumstances of the last decades of Joseon period led to the large-scale production of *Myeongjaseol* works.

Keywords: myeongjaseol(名字說), jaseol(字說), jasa(字辭), coming-of-age ceremony(冠禮), Zhu Xi's Family Rituals(朱子家禮)

김성균

소 속: 고려대학교

전자우편: kimsk4024@korea.ac.kr

논문투고일 2026. 02. 01 / 심사완료일 2026. 03. 10 / 게재결정일 2026. 03. 14